

민선 5기 나주시 조직개편 “미지근”

부서명칭만 달라질 뿐 업무·기능 그대로

민선 3·4기 공직기강 문란행위 조절에도 한계

나주시가 민선 5기에 들어서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부서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공직쇄신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 대내적인 공직쇄신을 위해서는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 공직 내부에 과격적인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에 들어서 조직역량을 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지난달

27일 시의회 승인을 거친 뒤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나주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당초 ‘2국·2실·1단·17과’에서 ‘2국·3실·1단·16과’로 개편하고 기업지원 실과 전략산업과 및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을 뿐 타 부서 등은 대체적으로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민선 3기와 4기에 이어 뒀던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등 그동안 무너진 공직기강을 쇄신하는 데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핵심적이다. “민선 5기에 들어서 조직역량을 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지난달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나주시 공무원노조의 ‘제식구 감싸기’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불친절한 공무원을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정식으로 두둔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이후 곧바로 시위까지 돌입하는 행태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특히 이 같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의 경우 민선 5기에 들어서 공공연히 이뤄져 공직내부조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공무원 A씨(6급)는 “1년 사이에 연이어 2차례나 읍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무관이 있으며 인사불명에 반발해 석연찮은 이유로 병가를 낸 뒤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또 다른 사무관도 있다”며 “공직기강 자체를 기대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8급)도 “승진이나 요직 발탁을 염두에 둔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좌천이 되면 도리어 향후에 신분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는 등 아직도 공직 내부가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공직 내부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만큼은 혁신적으로 단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의 경우 민선 5기에 들어서 일부 주요 인사만 단행한 뒤 전반적인 인사불명은 이번 조직개편 후로 미뤄왔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지석천 가창오리 화려한 군무

지난달 말부터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지석천에 가창오리 수십만 마리가 찾아와 화려한 군무를 연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가창오리떼가 흑한데 먹이를 찾아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장흥 이어 담양도 馬산업 본격 육성

2015년까지 2541억원 투자… 목장·승마장 등 구축

장흥군에 이어 담양군이 현대 레저 스포츠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승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말(馬)산업 육성에 나선다.

담양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승마동호회 회원을 비롯해 유통업자,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 말산업육성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은 2015년까지 2541억원을 들여 경주용·승마용·

식용 등 용도별 말생산을 위한 목장과 승마장을 3곳을 육성하고 마구를 생산하는 대장간, 말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마사회 ‘제 5경마장’을 유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군은 지난해 실패한 제 4경마장 유치전 경험을 토대로 또 한번 유치전에 뛰어들 방침이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등 경마장 유

치에 부정적 의견도 있어 지역 여론 수렴 등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난항도 예상된다.

군은 승마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체육과 연계한 승마클럽을 설립하고 승마교관 등 현장 전문인력 양성, 동호회 운영 등을 통해 승마인구 저변 확대도 힘쓸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 대나무 숲길 등을 연계해 승마장을 테마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일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 5경마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청신호

예산 20억 확보… 6개 테마관 갖춰 2012년 개관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은 목포시 산정동 소암하고 옆 부지 7130㎡에 지상 3층, 연건평 3515㎡ 규모로 들어설 계획으로 목포시는 총사업비 117억원을 들여 2012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건물 골조를 완성하고 외부 창호 및 새시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상반기부터 관람객이 직접 이용할 내부 전시시설을 제작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바다체험과학관은 6개의 주요 테마(깊은 바다 상상 흘·깊은 바다·중간바다·얕은 바다·바다아이동·4D 영상관)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바다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전시 위주로 구성됐다.

1층은 잠수정을 타고 해저탐사를 주제로 한 깊은 바다, 2층은 바다의 생물 탐사에 초점을 맞춘 중간바다, 3층은 바다의 환경과 어린이에 주안점을 둔 얕은 바다 등으로 층별 구성을 달리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전남 “수산발전기금 신청하세요”

5568억 지원… 1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올해 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총 5568억원 규모로 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및 영어법인 단체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수협 영업점 및 회원조합에 신청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기금사업은 분야별로 경상사업의 경우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 개선 사업 125억원 등 총 511억원이 지원된다. 용자사업에는 총히용어획량(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106억원, 양식어업지원사업 76억원, 우수 수산물지원 1340억원 등 총 5057억원이 지원된다.

수산발전기금은 주변국과의 어업 협정 체결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어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지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발전기금과는 별도로 도에서도 친환경 수산 및 수산업의 규모화 지원과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비의 바닷길서 뿹할머니 선발대회

진도 거주 70세이상 대상… 흥보대사로 활동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로 선정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 ‘뽕 할머니 선발대회’를 연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간접한 기도로 바닷길이 열리게 했다는 주인공인 ‘뽕 할머니’를 선발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흥보대사와 개막행사 의전, 축제 기간 관광객에게 사진촬영 기회 제공 등 상징적인 활동을 맡길 계획이다.

뽕할머니 선발대회 참가자격은 진도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할머니로 자녀를 훌륭히 성장시키고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으로 평소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등 주위에서 칭송을 받는 할머니가

대상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옛날 호랑이의 피해가 심해 바다를 건너 의신면 모도로 피신한 가족들을 만나고자 뿹할머니가 날마다 기도를 해 하늘도 감동, 바닷길이 열려 가족들을 만난 후 운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행사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로 발전했으며 이를 상징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뿹할머니 선발 대회를 개최한다.

‘꿈을 이루는 신비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올해 34회째 개최될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3월 19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목포대, 국제 수준 ‘건축학 교육인증’ 취득

목포대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가 호남권 대학 최초로 국제 수준의 건축학 교육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졸업생의 실무 능력에 대한 실무기관·업체의 목포대 교육에 대한 신뢰도 및 취업률 증가 등이 기대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 교육을 받은 학생은 입법 예고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축사 예비시험을 면제받고 실무수련 기

간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목포대는 KAAB 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 2002년 4년제 건축공학전공에서 5년제 건축학전공을 분리, 신설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충하는 등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건축학 교육인증제도는 국제건축가 연맹(UIA)이 요구하는 건축학 교육의 국제적 상호 인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 서구 신본길 16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서구 화정동 토지 488평 건평 759평 3층건물 감정가 27억 최저가 19억

근린주택 담양군 금성면 유틀리 토지209평 건물66평 현식단지영종 8천3백만

근린상가 남구 백운동 토지105평 건물82평 감정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상업용지 광산구 쌍암동 대지 1500평(6차선 도로집) 700평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주유소 서구 세하동 토지523평 건물138평 서광주역부근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6천만

기타·토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대지 154평 현황나대지 5천8백만

▶이와 상당불건, 짠토지 디수보유, 소액투자상당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신진공인증 개사(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 매매(임대가능)

- ▶ 공장용지 : 15.000평
- ▶ 건 물 : 9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 ▶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집)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집)(700평)
-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부구 동립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1200평)
- ▶ 주거지역(동립2지구 건너편)
- ▶ 건 물 :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 ▶ 대 지 : 2000평(생산녹지지역)
- ▶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 ▶ 매매가격 : 17억원(건물 600평 포함)

문의: 010-644-4265, FAX. 523-8558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